

전국 곳곳서 후학교육 매진하는 노스님들

원로 대원 고우스님 비롯
강백 각성 무비 혜거스님
선원수좌회 혜국스님 등
안거 산철 마다않고 열강



대원스님 고우스님 각성스님 무비스님 혜거스님 혜국스님

궁당익건(窮當益堅) 노당익장(老當益壯). “가난할수록 굳세어야 하고 늙을수록 건강해야 한다”는 뜻으로 <후한서>에 나오는 잠언이다. 흔히 쓰는 ‘노익장’의 유래이기도 하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어서 주름살만큼 경험도 쌓인다. 특히 오래 공부한 이의 경험은 지혜가 된다. 이즈막 노구와 지병에 움츠러들지 않고 대중설법에 매진하고 있는 원로 스님들의 삶이 미덥다.

최근 본지에 공주 학림사 오동선원이 낸 광고가 실렸다. 학림사 조실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대원스님이 선가(禪家)의 고전인 <조주록>을 강설한다는 내용이다. 무려 120세까지 살았던 조주 종심(趙州從諗) 선사는 그야말

로 노익장의 전설이었다. ‘개에겐 불성이 없다’ ‘차나 마시고 가라’ ‘뜰 앞의 잣나무’ 등 술한 화두를 남기며 입으로 선을 가지고 놀았던 구순피선(口舜皮禪)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다. 한국식 나이로 올해 일흔 다섯 살인 대원스님은 100일 동안 한숨도 자지 않는 용맹정진을 지금껏 이끌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간다. 스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돌이켜서 두드려야만 현실생활을 바르게 영위할 수 있다”며 동참을 권했다. 강설은 꼬박 2년간 이어진다. 5월21일부터 시작이다.

경북 의성에서도 노스님의 법석 소식이 날아왔다. <화엄경> 주석의 대가로 정평이 난 각성스님이 주인공이다. 금년에 팔순이다. 제16교구본사 고운사는 동안거 해제를 맞아 각성스님을 초청해 지난 2월29일부터 3월4일까지 <종정록> 특강을 진행했다. 각성스님은 안거가 끝날 때마다 <원각경> <대승기신론> 등 주요 경전에 대해 설명하며 수행자들의 발심과 분발을 독려하고 있다.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의 기획이다.

사실 후학에 대한 교육에 매진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회향하고 있는 스님들은 쉽게 목격된다. 교육원장을 지낸 무비스님(1943년생)이 대표적이다. <화엄경> 전체 30권에 대한 주해서를 펴내고 인터넷 카페 ‘염화실’에 손수 강의 동영상 올리며 10만권에 이르는 불서를 보시하는 열정은 무서울 정도다.

<육조단경>을 교재로 대중능강을 수시로 열고 있는 원로의원 고우스님(1937년생)도 귀감이다. 어느덧 종교문화축제로 성장한 금강경강승대회의 산파인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스님(1944년생)과 세계명상대전에서 간화선의 진면목을 보여준 혜국스님(1948년) 역시 수행과 법문, 경전과 어록 강의로 여생을 일관하고 있다.

알다시피 한국사회에서 나이는 벼슬이다. 때로는 권력이 되어 주변을 괴롭히고, 때로는 탐욕이 되어 아래사람들을 밟아누르려 한다. ‘스승’과 ‘존대’의 차이는 낮춤과 배움에 있지 않은는지. 앞서가는 어른들의 앞선 생각이, 배움에 목마른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종단과 국민 기망

‘봉은사 한전부지 매각 사건’ 1면에 이어

게다가 계약자는 총무원장과 윤태진이라는 한 개인이었다. 이 역시 봉은사 주지 서운스님이 배제된 채 체결된 ‘효력없는 계약’인 점이 발견됐다.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의 효력을 상실할 만큼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계약당사자인 총무원장과 윤태진 모두 법적으로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다. 사찰 재산의 대표권은 당해 사찰 주지에게 있기 때문에 봉은사 소유토지는 봉은사 주지가 계약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계약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총무원장이 계약자로 이름을 올렸고, 윤태진은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던 윤진우 씨가 신분을 숨기고 가명으로 이름을 기재했다.

또한 중앙총회의 결의에 의한 총무원의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정상적인 매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봉은사 토지매매는 당시 헌법법을 위반하고 진행됐다. 처분승인 과정을 살펴보면, 봉은사 주지의 처분 신청이 없었을 뿐더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처분승인권을 갖고 있던 문공부도 계약의 문제점을 알고 수차례 보안을 지시했지만 결국 보안 없이 처분됐다.

문공부 승인 후 윤태진을 대신해 상공부 종합청사건설위원회가 새로운 계약자로 등장했다. 종합청사건설위는 1970년 9월26일 윤태진의 계약을 승계했다. 정부가 가명을 쓴 서울시공무원을 계약자로 앞세웠다가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자 비로소 등장한 것이다. 정부청사 이전을 비롯한 강남 개발을 내세워 종단과 국민들을 기망하고 봉은사 토지를 비롯한 강남 일대를 싼 값에 매입해 다시 비싼 값에 되팔아 비지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1971년부터 3년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낸 손정목 씨는 그의 저서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서 정권의 비지금 조성을 위한 투기였음을 지적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2기 염불교육지도위원 위촉

4월15일 한글의례의식 교육

조계종 2기 염불지도교육위원회에 화암, 인목, 법안, 정오스님과 비구니 현준스님이 위촉됐다. 또 위원장에 화암스님이 선임됐다. 염불교육지도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기 첫 회의를 열고 한글염불의례 연수교육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4월15일 오후1시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기본교육 기관 불교상용의례 교과목 담당 교수들에게 한글의례의식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전국 사찰 노전, 부전, 기도법사 스님 대상 한글염불의례 연수교육도 시행한다. 서울경기강원권 스님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9일 오후1시 서울 구룡사에서, 오는 10월27일 영남제주권, 충청호남권 스님들을 위한 연수교육도 예정돼 있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전국 교구본사 ‘희망의 길벗’되기 동참

8일 주지회의서 ‘교구 사회노동환경위’ 구성키로

‘희망의 길벗이 되겠습니다’라는 올해 종단 중무기조에 발맞춰 전국 교구본사도 대사회 활동 강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기2560년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가칭)교구본사 사회노동환경위원회’ 구성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총무원뿐만 아니라 각 교구본사에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인권, 빈곤,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 현안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종교계의 적극적 지원 및 보호 요청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불교의 활동 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은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을 근거로 위원회 취지와 구성안, 활동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본사 주지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구성안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주요 소임 스님, 신도회장 등을 비롯한 관련학자, 법률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지역 사회 현안을 놓고 불교적 해법 창출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20개 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2559(2015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의 건, 한전부지 환수위원회 활동보고 및 결의문 채택의 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의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에 본사 주지 스님들도 종단 핵심과제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교구 차원에서도 함께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탄자니아 농업고등학교는 오는 9월2일부터 10일까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현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교구 특성을 살려가면서 지역 사회에서 결실을 이뤄가는 모습은 종단의 위상을 어느 때보다 한층 높여가는 일로 여겨진다”며 “마주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직할교구 차원 ‘어린이청소년 캠프’ 연다

성지순례 장학금 지원 등
청소년포교 활성화 매진
직할교구 사업계획 확정

조계종 직할교구는 올해 예산을 4억4640만원으로 책정하고 수도권 포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네트워크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직할교구는 또 승려복지 특별회계 6억5400만원, 부동산수의 적립금 특별회계 15억2200만원을 확정했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차 직할교구총회’를 열고 2015년도 결산, 201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직할교구는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청소년 캠프와 성지순례 등을 열고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잇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님들을 위한 학자금도 후원할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정기주지인사평가, 법회현황 조사, 총무행정 지도, 직할교구 신도회 조직 강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한해도 펼친다.

직할교구는 이날 상임위원회에 혜자스님(도안사), 호산스님(수국사), 수암스님(화계사), 우봉스님(호암사), 도서스님(도선사), 탄문스님(백련암), 도림스님(정수사), 정호스님(승가사), 계호스님(진관사), 자홍스님(정향사)을 선출했다. 이와 함께 주지인사고과 최우수사찰로 선정된 서울 호암사 주지 우봉스님과 서울 미타사 주지 성현스님이 표창패를 받았다.

이날 직할교구총회 의장 자승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직할교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에 지역사회 불교 위상 및 포교에 미치는 영향이 더없이 크다”며 “직할교구 성취가 곧 종단 기준이자 모범인 만큼, 지역사회 의미 있는 실천을 위해 언제나 처럼 진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전 부지 환수활동과 관련해 “모든 사찰의 당당한 권리이자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직할교구 역시 깊은 관심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불기2560년 제1차 교구본사주지회의.

일광여행사는 전문가와 더불어 오직 불교성지순례만 고집합니다

(주)일광여행사

불교종심여행사

www.ilkwangtour.co.kr

02)736-6272

24시간 상담가능

중국4대 불산

<명품1>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출발일 4월 1일, 13일, 22일, 27일, 29일, 5월 1일, 22일, 26일

<명품2> **구화산 황산 보타산 7일**
출발일 4월 1일, 13일, 27일, 29일, 5월 16일, 22일, 26일

<명품3> **관음도량 보타산 천태산**
(한산 습득 풍각 천태지자 주석처)
출발일 4월 1일, 12일, 22일, 29일, 5월 1일, 16일, 22일, 26일, 31일

<명품4> **아미산 보현도량 구개구 낙산 대불 7일**
출발일 5월 16일, 22일, 26일, 31일

<명품5> **오대산 문수도량 북경 부처님치사리 영명사 깎다거 조주선사 관음원 백림사 6일**
출발일 5월 16일, 22일, 26일, 31일, 6월 7일, 9일, 13일, 20일, 27일

중국선종의 흐름을 찾아서

<특별지역1> **달마에서 혜능까지 10일**
출발일 5월 17일, 22일, 31일

<특별지역2> **달마에서 혜능 완벽 15일**
출발일 5월 22일, 6월 7일

일본불교성지순례

- **일본 시코쿠 불교성지 4일**
출발일 4월 1일, 14일, 23일, 27일
- **오사카, 나라, 교토, 교야산 4일**
출발일 4월 3일, 9일, 13일, 27일

황금의 나라 미얀마

<명품1> **미얀마 양곤 파간 만달레이 예호 6일**
출발일 3월 23일, 4월 1일, 13일, 22일, 27일, 29일, 5월 11일, 18일, 23일

<명품2> **미얀마 양곤 파간 만달레이 5일**
출발일 3월 23일, 4월 1일, 22일, 27일, 5월 11일, 18일, 25일

특특수지역 순례

- **수미산 티베트 15일** 출발일 5월 15일
- **운돈의 땅 부탄, 인도 10일** 출발일 5월 16일
- **네팔, 카투만두, 치투완, 사파리 투어, 룸비니, 포카라 9일** (1,890,000원)
- **스리랑카 불치사리친견 7일**
- **라오스 5일** 출발일 4인 이상 매일출발
- **베트남, 캄보디아 6일**
- **중국 천하 민족의 영산에서 산신제 5일**
출발일 6월 10일(대구출발), 13일, 23일, 7월 7일, 12일, 16일, 22일, 26일

• 불광산사 등 대만 성지순례 5일

부처님의 나라 인도성지순례

<명품1> **완벽 8대성지 타지마할 10일**
(룸비니, 부다가야, 녹야원, 쿠시나गर, 가원정사, 바이살리, 영취산, 상카시아)
(특가 1,990,000원)

<명품2> **완벽 8대성지, 아잔타, 엘로라, 산치대탑, 타지마할 12일**
(룸비니, 부다가야, 녹야원, 쿠시나गर, 가원정사, 바이살리, 영취산, 상카시아)
(특가 2,490,000원)

※비수기를 맞이하여 3월부터 9월까지 4인 이상 매주 월요일 출발가능

특별기도

인도부다가야 대탑 10일
(1,590,000원, 4인 이상 출발)
출발일 4월 11일, 22일, 5월 16일, 23일

※에어컨 호텔, 국내선 포함, 한식전용주방장, 기도는 보리수 아래나 법당에서 자유로움

모든 일정은 10인 이상시 출발, 전일정 숙박제공,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차 보험 가입, 각종 공항세 포함, 유류할증료, 전일정 투어비 ※각국 비자세 포함, 단 연합상품 제외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항공 요금에 따라 동참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광여행사는 노점, 노음선, 노소핑을 실천하며 인천 출발,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입니다. (단, 호텔 매너팁 불포함) 성지순례를 할에 불필요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